

고려대학교의료원-사마리안퍼스 코리아, 국제구호활동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상호협력관계 체결

2021-04-01



크리스토퍼 워스 사마리안퍼스코리아 대표(오른쪽)가 1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에서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과 함께 업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1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3층 본부회의실에서 국제기독교단체 (재)사마리안퍼스 코리아(대표 크리스 워스)와 고려대학교의료원(원장 김영훈)이 국제재난대응 및 보건 의료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보건사업지원과 인적교류 등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학술협력,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제기독교단체인 사마리안퍼스는 2015년 에볼라 긴급대응활동을 계기로 감염병 긴급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오고 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사마리안퍼스는 뉴욕, 이탈리아, 바하마, 캘리포니아 및 노스 캐롤라이나에 야전병원을 세워 호흡기 증상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외 총 32개국에서 138개의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크리스 워스(Chris Weeks) 대표는 “사마리안퍼스는 지난 50년간 개발도상국 및 재난 현장에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약 50개의 협력 병원이 있다. 고려대학교의료원과의 이번 협력을 통하여 우수한 한국 의료 기술과 사마리안퍼스의 노하우가 전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영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고려대의료원은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왔다”면서 “이번 사마리안퍼스코리아와 뜻을 함께 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대의료원의 의료역량과 사마리안퍼스의 국제보건활동에 대한 경험이 만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미국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의 한국 지사이며 본사 대표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1973년 한국 기독교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이다. 사마리안퍼스는 지난 50년간 전세계 긴급구호활동, 보건의료활동 및 어린이 대상 선교활동 등 다양한 초교파적 비영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100개 단체 중 19위 규모의 비영리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매년 전세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영국, 호주 및 독일에 지사를 설립하였고 17개국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국제재난대응 및 보건의료활동과 어린이 심장 수술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관 홈페이지(www.samaritanspur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소개

사마리안퍼스는 기독교 구호 단체로, 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전 세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물질적 도움을 전하고 있다. 지난 사마리안퍼스는 지난 50년간 전세계 긴급구호활동, 의료선교 및 어린이 대상 선교활동 등 다양한 비영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미국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의 한국 지부이며 본부 대표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1973년 한국 기독교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이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국제 긴급 구호 활동, 의료 선교 및 어린이 심장 수술 지원과 해외 미전도 지역 어린이 사역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언론 보도 관련 문의

기부사역팀(02-2105-1864 또는 rachel.ahn@samaritanspurse.or.kr)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